



코스피 2258.91 (0.00)	코스닥 761.94 (0.00) (15일)
금리 (우대금) 2.06 (+0.01)	환율 (원/달러) 1127.90 (-6.00) (14일)



[뉴스]
렌탈시장 20년
매년 11.5% 급성장
시장규모 40조 눈앞
03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1년 새 85% 사라졌다

(282개→41개)

J노믹스 1년 푸어 이코노미

4 재벌개혁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김상조위원장 취임 1년
순환출자 해소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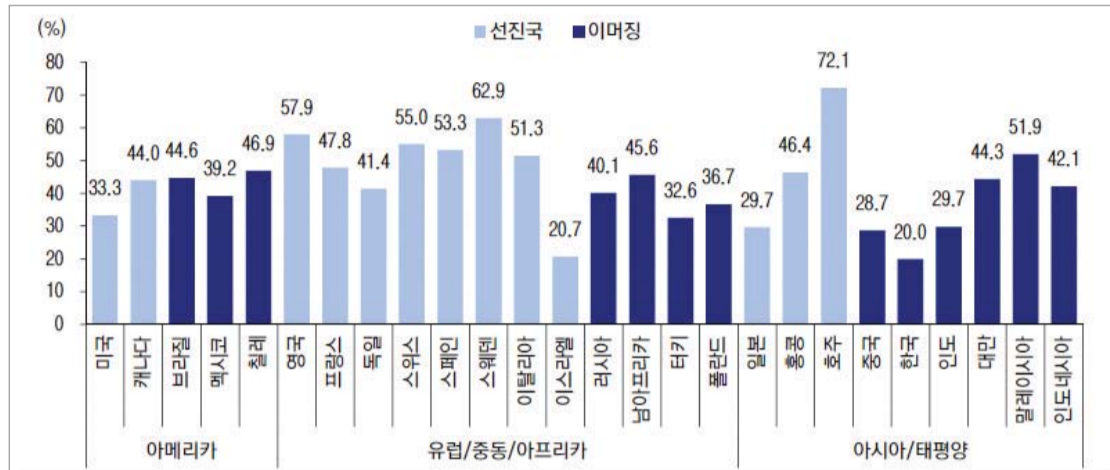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개선 탄력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정책이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기업 집중이란 역효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구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일부 상장사의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국내 증시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정부는 출범부터 이러한

(글로벌 주요국 배당 성향)



주:MSCI 기준, 포함 국가는 전세계 시가총액 대비 국가별 시가총액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자료: Thomson Reuters,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경제력 집중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대기업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고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하는 ‘순환’ 출자 해소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282개에 달하던 57개 대기업 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41개로 감소했다. 2013년 7월 (9만 7658개)과 비교하면 5년 새 99.96%가 감소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1년 사이 241개(85%)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이는 대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빠르게 순환출자를 해소한 덕분이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3년 9만 5033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일거에 해소했다. 지주사를 만들고,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던 계열사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투자회사를 지주회사에 합병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롯데그룹은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을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농협(2개), 현대백화점(3개), 대림(1개) 등도 올 들어 지주회사 전환, 자본매각 등을 통해 남아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끊었다.

아직 순환출자 고리가 남아 있는 기업 대부분은 향후 자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지배구조

편안을 통해 남은 4개의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고 전했고, 현대중공업도 남은 1개를 올해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삼성 역시 남은 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조만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8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공정거래법에는 기존 순환출자고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주식 처분을 통한 순환출자 해소보다는 한 발 물러선 수준이지만 의결권 제한 조치로 지배력이 약화됨에 따라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순환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압박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이 지난 달 30일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수칙을 말한다. 가령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로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면 기관투자자는 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는 노숙과 사측의 입장 차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지만 매 해 주주권 행사 범위가 커지는 만큼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공정위의 재벌 개혁 정책 추진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이 5%포인트(p)가 높아지면 코스피는 16.9%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현재 한국의 배당성향은 20.0% 수준인데 이머징 국가의 배당성향이 34.6%임을 고려한다면 배당성향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정부수립 70주년 경축사

“내달 평양서 비핵화·종전선언 발걸음 내딛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다음달 평양을 방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가기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다. 남북간 경제교류가 본격 재개되면 북과 만나는 경기·강

원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제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 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는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면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우리의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동북아 6개국에는 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

골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은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소한 170조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을 더해 나온 수치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돼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고,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시킬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면서 “남북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89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총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를 만들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라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 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체감실업률 12% ‘사상 최대’ 제조업취업자 4년 만에 최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체감실업률은 23.2%

체감실업률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급감했고, 청년층이 느끼는 실업률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8%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상반기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11.6%였다가 2016년에 11.2%로 낮아졌다. 지난해 상반기에 11.4%로 반등했고 올해 들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일자리 수요를 포괄해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자 외에 추가 취업을 원하는 이들거나, 취업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기회가 있으면 취업할 이들까지 포괄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고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이들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실

업률과 구직자가 느끼는 체감실업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고용보조지표3이 이를 보완하는 지표인 셈이다. 고용보조지표3이 집계 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은 일자리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2분기 들어 23.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6%에서 올해 1분기 22.9%로 오른 뒤 2분기 연속 상승세다. 통상 체감실업률이 1분기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한 사람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3만 1000명으로 2014년 상반기에 443만 2000명을 기록한 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조선 등의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고 여성이 많이 취업하는 의복과 식료품 등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가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